

광주교육정책연구소 2018년 고교 배정 방식 개선안 제시

거주지 기준 배정...통학시간 30분 이내로

24일 공청회 거쳐 내달말 확정...선지원 비율 축소 신중 의견도

내년 고교에 진학하는 광주지역 중학생들은 거주지로부터 통학 시간(대중교통)이 30분 이내인 학교를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成績)을 3등급으로 나눠 고교를 균등하게 배정했던 방안은 5등급으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선지원추첨배정(선지원)으로 정원을 선발하는 방식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비율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오는 24일 열리는 '고교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3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배정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대 지리학과 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고교에 진학할 중학교 3학년생 1만2206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선지원 방식 축소(40%→20%) 또는 폐지 ▲출신 중학교 가 아닌, 거주지(243개 지점)를 기준으로 통학거리 30분 이내 학교 배정 ▲고교 균등 배정을 위한 성적 등급 확대(3→5등급) 등을 제안키로 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2015년 공청회(2차) 때 제안했던 '100% 근거리 배정' 방식은 이번에는 채택되지 않았다. 100% 근거리 배정안의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게 연구소측 설명이다.

현행 거리와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첨배정(선지원)으로 정원의

고교 배정 방식 개선안 주요 내용

- 선지원 20%로 축소 또는 폐지
- 출신 중학교 아닌 거주지 기준
- 성적 등급 3→5등급으로 확대
- 100% 근거리 배정 방식 배제

40%를 선발하는 방식의 경우 20%로 줄이는 방안에 아예 폐지하는 안(案)까지 포함시켜 여론 수렴 뒤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지금껏 고교 배정 과정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다 보니 선호학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 전례를 감안, 학교를 고루 균등 배정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선지원 비율을 축소할 경우 학

생·학부모들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기존 방식에 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도 고교 지원 과정에서 자칫 도심과 외곽에 거주하는 학생 간 차이가 커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정책연구소는 아울러 학생 수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구에 여고를 신설하고 풍암고를 여고로 전환하는 교육청 방안을 재차 제시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통해 교육정책연구소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도대체 그 비좁은 틈새로 어떻게... 인형뽑기 기계 들어가 '항당 절도'

경찰, 20일 추적 5명 입건

"도대체 어떻게 그곳을 들어갔지?" 어린아이도 아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남성이 인형뽑기 기계안으로 들어가 인형을 훔치는 '항당한' 일이 일어났다.

광주동부경찰은 20일 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19)군과 원모(2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25일 새벽 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황금동 강모(39)씨가 운영하는 인형뽑기 게임장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가 4만5000원 상당의 인형 7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들어간 인형뽑기 기계 퇴출구는 가로 240mm 세로 320mm 크기로, 성인남성이 통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크기였다.

조사 결과, 일행 중 가장 체구가 작은 이씨는 원씨 등 공범 4명이 밖에서 망을 보는 틈을 이용해 인형 퇴출구에 자신의 상반신을 집어넣은 뒤 손을 뻗어 인형을 훔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여일 동안 사건 현장과 주변 상가에 설치된 100여곳의 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문화전당에서 택시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것을 확인했고, 원씨가 타고 간 차량의 번호를 알아내 결국 원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인형뽑기 기계에서 3만여치의 게임을 했으나 인형을 1개도 뽑지 못하자 이씨가 몸을 집어넣어 인형을 훔쳤다"며 "어떻게 퇴출구에 들어갈 생각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37주년 5·18행사위 내일 출범

위원장에 위인백 5·18교육관장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 상임행사위원장은 위인백 5·18교육관장이 선출됐다.

행사는 제37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공수부대 집단 발표명령자 규명 및 헬기사격 명령자 규명 등 5·18진상규명을 내용으로 한 5·18국가공인보고서 채택 및 임을위한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광주학살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 20주년, 신묘역 조성 20주년을 계기로 끊이지 않는 5·18 왜곡·편향 움직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한다.

경찰 총경 판사서 숨겨

20일 오전 8시 4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관사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박모(53) 총경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총경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이상한 여건 직원들이 관사에 찾아가 침대에 쓰러져 있는 박 총경을 발견했다.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대 3기인 박 총경은 제주경찰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경기북부경찰청에 발령됐다. 박 총경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 송일고를 졸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개원 앞둔 어린이집 준비 분주

다음달 2일 개원을 앞둔 광주북구청어린이집(원장 이명희) 직원들이 20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입한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입인지 부정사용 의혹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검찰 조사·징계위 회부 앞뒤

전자수입인지 부정 사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와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둔 지자체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광주시 남구와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영광군 흥농읍 한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남구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3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는 전날 오후 8시께 영광대교 인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며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해경, 소방, 군은 A씨 전화 이후 해안가를 중심으로 수색에 나서 이날 시신을 찾았다.

구정에서 자동차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최근 감사에서 민원인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수입인지를 무단 복

사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가 지난 2015년 1월 12일부터 지난해 7월 5일까지 7만4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수만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남구는 전자수입인지 발급처에서 정가 97% 수준에 환매가 이뤄지는 점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횡령 의혹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말에는 징계위원회도 열 예정이었다. 해경과 남구는 A씨 사망에 대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현영기자 kh@kwangju.co.kr

'뇌물 수수' 보성군수·전남도의장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한(뇌물수수 등) 이용부(64) 보성군수와 이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뇌물공여 등) 임명규(59) 전남도의회 의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4년 8월 보성군 별교읍의 집터 1031㎡(감정가 4800만원)를 임 의장으로부 터 시가보다 1억여원을 초과해 지출한(뇌물공여 등) 건설업자 A씨와 보성군 축제 운영 임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임찰을 방해하고 이 군수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임찰방해 및 직권남용 등) 공무원 B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초기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면 추가 비용 없이 무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며 허위 설계도를 주는 대가로 이 군수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채권 혐의(사기)로 사이버 종교인 C(60)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임 의장은 땅을 이 군수에게 헐값에 팔고 이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 병원에 특별 채용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4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또 이 군수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예산 초과액보다 1억여원을 초과해 지출한(뇌물공여 등) 건설업자 A씨와 보성군 축제 운영 임찰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해 임찰을 방해하고 이 군수에게 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임찰방해 및 직권남용 등) 공무원 B씨 등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 밖에도 이 군수는 임 의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딸을 취업시키고, 보성군 공무원 B(58)씨에게 지시해 A씨의 처남에게 각종 관공사를 발주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오후 사람 없는 교회만 골라 3차례 텀 40대 '털미'



○...사람이 없는 한 적절한 오후에 교회만을 택해 금품을 훔쳐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털미.

○...2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4)씨는 지난해 2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의 한 교회에 들어가 교회 관리집사인 진모(47)씨가 보일러 수리를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세미나실에 침입, 진씨의 점퍼에 들어있는 8만5000원을 꺼낸 뒤 전동동

털 2개와 쌀 20kg들이 2포대를 훔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두 곳의 교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

○...경찰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모델에서 생활을 하는 박씨가 요즘 날씨가 추워 입자리를 찾기 어려워져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회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에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해와 불구속으로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8(토) ~ 21(화)
- 전형일 : 2017. 2. 22(수) 오후 2시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사로 3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대학원 신입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일)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 22(수) 오전 10시~18시
		신학과(Th.M.)	○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22(수) 오전 10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22(수) 오전 10시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2017. 2. 22(수) 오전 10시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일)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